

상상적 비유로 빛은 우주의 모습

르 클레지오의 「침묵」

「침묵」이란 책은 '물질적 황홀'과 '침묵'이라는 두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역자의 말을 빌리면, "「물질적 황홀」은 아직 내가 태어나기 전의 우주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침묵」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뒤, 내가 죽은 뒤의 우주의 광경을 그리고 있다." 「자기」가 부재하는 세계에 대한 생각은 어떤 뜻을 지닐까? 「부재」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존재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리키지 않는가.

르 클레지오의 「침묵」은 삶과 실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죽음을 제시한다. 실재는 경험의 원천이다. 경험에는 '나'와 '사물'의 존재가 전제된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언어'의 옷을 입는다. 그러므로 침묵은 단순히 언어의 부정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땀해야 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써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세계는 인간의 의식이 가공하고, 약속하고, 또한 유혹받은 언어의 세계이다. 우리는 이 언어가 임의적이고 상대적이며, 참다운 실재를 드러내지 못함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여기에서 빠져 나가지 못한다. 르 클레지오의 「침묵」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다. 침묵은 그것을 통해서 실재가 드러나는 의식이다. 그러나, 이미 말을 익힌 인간에게 침묵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제 침묵을 맛보기 위해서는, 단지 언어의 부정이 아니라 언어의 전체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 전체성은 삶과 죽음, 존재와 무를 함께 포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침묵)은...우주 속에 살아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제적인 연합(p.81)"이다. 르 클레지오는,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그 부재는 오히려 예고의 부재이다) 실제에의 통로임을 보이고 있다. '물질적 황홀'은 '침묵'과 안팎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그리하여 침묵으로 경험하는, 탄생중인 세계의 황홀을 그린다.

「침묵」은 쉬운 단어, 간결한 문장으로 씌어졌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글이 아니다. 두편의 글을 구성하는 단장들은 독자적인 듯하면서도 내적인 연결을 교묘히 만들어낸다. 르 클레지오의 글은 체계적인 글이 아닐 뿐더러 직관과 많은 상상적 비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될 수 없는, 그 자체로 질서 이전의 원형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삽입된 그림을 보라). 그의 글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재구성될 수 있는 풍부함을 읽는 이에게 돌려 준다. 르 클레지오의 사적 세계의 표현이나 묘사들은 때론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은 그가 그리고 있는 언어와 사물의 세계 및 침묵의 세계를 함께 더듬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그가 들추어 내는 자질구레한 사물들이나 사건들이 얼마나 엄숙하고 또한 황홀한 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정된 말의 소외로부터 풀려나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이 인생의 완성, 인생에 형태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인생의 고리쇠를 맞물리게 잠그는 것이듯이 침묵은 언어와 의식의 지.한 결말이다(p51)."

박창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4-272 24/4

조정래의 「대장경」

글안의 포악, 여진의 노략, 왜구의 난동, 몽고의 압박으로 갖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은 고려는 먼 옛날부터 내려온 슬기 재치 끈기의 정

신으로 결국 물리쳤는데 이로 인한 특출한 인물이 배출되어 추앙을 받았는 바 몽고의 침입에는 뚜렷한 인물이 없었지만, 당시의 국교인 불교의 힘을 빌었다는 것이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역사소설이라고 하면 역사 야사 구전을 바탕으로 특정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이 상례인데 대장경에서는 사실에 충실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행적 묘사에 있어 주체성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것도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소설의 배경은 전쟁터로 하여 특정인물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많은데, 대장경도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다룬 역사소설로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 외에 간간히 제삼자를 등장시켜 생각의 폭을 넓게 하도록 한 것도 이 책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라고 여겨진다.

고종 최우 수기대사 근필 장군, 그리고 그의 인물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언행을 통하여 성격을 노출시켜 독자 스스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저자는 역사의 사실과 문학의 정수를 병행시키면서 그 어느쪽도 치우치지 않고 양립의 관계를 무던하게 표현한 필치는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구하는 길은 불력으로 대장경 만드는 것이라고 지도층이 합의하여 추진할 때 네가지 대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하는 수기대사의 최우에 대한 충고 등에서 지금의 우리들은 반성하고 많은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교훈적인 것을 대화를 빌어 은연중 암시를 준 저자의 상상력은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의 대지휘자로 수기대사는 주체를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에서 찾으려 하여 몇년에

걸쳐 끈질긴 힘을 민중에서 얻었다는 점과 불사이면서도 국사이기도 한 대장경 판각사업을 통해 인심을 수습하고 지도층의 잘못된 생각을 돌리면서 나보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집념을 강론과 행동으로 보이며 장군 근필의 태도를 끝까지 믿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기대사의 인간성 인간에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

근필의 불심과 애국심이 어떤 귀감을 주는가를 간접적으로 강조한 저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인상에 남도록 하게 한 점도 또한 이 책의 특색이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장경의 배경이 몇백년전의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을 반성케 하는 것이 많은 바 주체성이 얼마나 중한가를 일깨운 이 책의 여파가 모두에게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게끔 기폭제가 되도록 한몫을 하였다는 바탕으로 볼 수 있다.

라상억

충북 청주시 모충동 87-2

뒤렌마트의 「약속」

우연히, 뛰어난 구성력을 구사하는 소설가를 만나게 됐다. 그후 흥분에 휩싸여 그의 다른 글들을 찾아다녔고, 드디어 한겨울의 어느날엔가 꿈속에서나마 그와 대면할 기회를 가졌다. 그날 아침 몽롱하게 흐느적거리는 정신을, 조간신문에 난 짧막한 기사가 바로 세웠다.

"스위스가 낳은 드라마의 귀재 프리드리히 뒤렌마트 사망. 향년 69세."

뒤렌마트 그는 다양한 저술활동을 했으며, 추리소설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약속」을

출판사와 함께 성장하는 지업사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고려지업사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

다물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 292/4546, 294/9639 Fax : 294/6443

포함하여 단 네편을 썼다. 「약속」은 그가 쓴 마지막 추리소설이다. 사건에 있어선 전혀 새로운 것이 없지만 작가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과 뛰어난 구성으로 인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글이다.

「약속」은 그 내용을 여러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한다.

거의 모든 추리소설이 그러하듯 사건이 발생하고 강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약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금전이나 애정문제가 개입되지 않아 더욱 오리무중에 빠진다. 독자는 이 사건에 대처하는 뛰어난 경감 마태의 태도로 인해 의아스러운 감정에 빠지게 되고, 글을 읽어감에 따라 이 의아함은 감탄어린 이해심으로 바뀐다. 그냥 내팽겨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인 마태가 낚시대를 걸쳐 놓고 기다리는 것을 독자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러다 가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몇번이고 책에서 눈을 떼고 허공을 주시한 채, 마지막 장을 들춰보고 싶은 감정을 가까스로 억제한다. 답답함이 울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변하고 책을 다 읽고난 후엔 어떤 감정의 표현도 할 수 없다. 그저 망연히 앉아 있을 뿐.

「우연」이란 낱말은 뒤렌마트의 소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약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처에 우연이 쥐뿔으로 깔려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고대소설 속의 빈번한 우연 난발에 식상해왔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우연은 단지 결말부분에서의 행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위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삶에 계기를 주고 전환점으로서의 우연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약속」에는 우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운명의 전환점과 그 변화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뒤바뀐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경감 마태는 이런 우연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세운다. 그 가정이 드디어는 현실로 나타나지만 인간 마태는 폐인이 된다. 사실 마태가 설정한 가정은 우리들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도 신문지상에만 보도되고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기자들이 밝혀낸 것 만으로도 많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 단지 우리가 너무도 이 모든 것들을 무심히 지나쳐 버릴 뿐이다. 「약속」은 우리에게 주위에서 일어난 미궁의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 가정해 보라고 한다. 미묘한 인간본성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도처에 깔려있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영화 「해리와 셸리가 만날 때」의 남자 주인공 해리처럼 책을 다 읽기 전에 끝을 먼저 보지 말라는 것이다.

김영순

서울시 강동구 상내3동 405-16 29/6 · 학생

「문학을 향하여…」

무크지 형식을 띠고 이번에 나온 「비평의 시대」 「문학을 향하여, 문학을 넘어서」는 신세대 특유의 사유체계와 방식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책이다. 인식지평의 확장과 심화에 있어 오래 세대간의 갈등과 마찰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세대간의 극복과 계승의 문제는 달리 말하면 세대교체의 진통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가 싱싱하고 발랄해 보이는 것은 의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유법과 세계해석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신세대의 발언과 비평은 진정한 설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속칭 문학과지성 3세대로 평가되는 이들은 원세대인 문학과사회가 보여주던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훨씬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듯 하다. 윗세대가 80년 광주의 비극에 대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신적 훼손에 신음했고, 그 극복의 일면성에 정신적 자유를 소진했다고 보는 반성적 인식에서부터 그들은 출발하고 있다. 이를 좀더 부여하면 문학이 운동의 전위에 살 수 있다는 논리, 「문학으로서의 운동」과 「운동으로서의 문학」의 의미간극 속에서 문학과사회가 親與的이라는 끊임없는 혐의의 눈길속에서, 혹은 「높은꿈의 시학」을 세우려던 시운동 그룹들이 우주인적 상상력이라 매도당하던 80년대 민중문학의 엄숙주의가 문학적 중심인식으로 통용되는 상황의 반성으로부터 「비평의 시대」의 인식들이 착지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현대계의 문화적 전열이 적과 동지를 갈라세우고 그 헤게모니 다툼이 문화의空洞化를 초래했다고 보는 이들은 그동안 통용돼온 문학적 잣대에 대해서도 전복적 질문을 통해 새로운 위상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인상이다. 대표적 인물을 통한 전망제시, 도식적인 구성에 힘입은 낙관주의 고취, 전형을 통한 총체성의 강요에 명백히 그 결락사항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들은 각 개인속에 출렁거리는 일상적 욕망에 대해 주목한다. 대적전선에서 반동적 작의로 방치됐던 개인적인 욕망들을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으로 복원시키는 한편 권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시켜 놓았다. 「적은 아름다운 꽃밭속에 숨어있다」고 말한 고정희 시인의 섬뜩한 인식처럼 권력을 억

압으로 치환시키는 단순성을 이들은 반대한다. 지배이데올로기가 대항담론마저 더욱 세련되게 복제해내는 흡수력을 때론 지녔듯이 대항자가 지배자의 논리를 증오할수록 닳아간다는 무서운 인식을 읽어내고 있다.

아직 이들은 젊다. 이제 본격적인 60년産의 정신적 질주가 부각될 것이다. 그 가능성의 문턱을 「비평의 시대」는 넘어섰다. 문학과지성의 방개세력이란 꼬리표가 이들에게는 곤혹스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에피고넨의 우울한 전략을 벗어나려면 앞세대와의 창조적 계승이 관건인데 그 싱싱함 만큼 전연과 계승의 본격적인 모습이 한층 기대된다.

박영욱

서울시 종로구 숭인2동 19/5 1111번지

—최고의 필진과 디자이너가 다 모였습니다—

디자인 예원은 귀사의 편집실입니다

EDITORIAL DESIGNSTUDIO



표지디자인, 본문 편집 및 기획,
자서전·전기 집필, 교열 및 교정, 광고 카피 및 디자인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85번지
· TEL : 代 (02)312-8331 FAX : (02)393-9267

出版企劃

〈번역·집필〉

《全分野·全種別》

- 영·독·불·일·러시아어 번역
- 한·중 출판정보학회
- 한·중 번역저술학회
- 현대중국학술정보센터

代表 : 黃秉國

(前) 숙대교수·출판사 기획실장·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 Apt. 10단지 31동 앞
전화 : 645-7052

책을 책답게 만들고 싶은 분들만 읽어주십시오!

- ◆ 기획·편집에는 자신이 있지만 제작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같은 제작비용으로 보다 야무진 책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 편집자의 의도를 기대 이상으로 반영해주는 제작처를 원하십니까?
- ▶ 정기회는 책을 책답게 만들어드리는 출판제작전문집단입니다.

출판전문인을 위한 제작전문집단

정기회 서울 중구 을지로3가 95-4 한일빌딩 301호
전화 272-2281 팩스 272-2282